시론

흑백의 종교? 다채로운 영성!

차종관 목사
세움교회

프레드릭 베크만(Fredrik Backman)의 소설 <오베라는 남자(A Man Called Ove)>의 주인공 오베라는 사람은 죽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 아침 6시 15분 전에 정확히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마을 주변을 순찰한다. 그는 항상 바쁘게 살지만 죽음을 원한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언제나 정반대다. 이 남자는 색깔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연봉도 있었지만, 그는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흑백 사진 속의 배경처럼 산다. 단지 물려받은 삶을 의무로 살아가는 그런 남자다. 그래서 그는 변화에는 저항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색깔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산다.

이 남자도 한때 색깔이 무엇인지 느꼈던 적이 있었다. 소냐(Sonja)라는 여자를 만나면서부터다. 소냐는 모든 색깔의 물감을 담은 팔레트 같은 사람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며 모두에게 친절한 그런 여자였다. 소냐를 알고 지내면서 오베라는 남자는 그녀의 색깔에 물들기 시작했다. 오베는 그녀와 결혼하면서부터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났다.

소냐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오베라는 남자는 다시 색깔을 잃었다. 그는 소냐의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이 오전 6시 15분 전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마을을 순찰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해 갔지만, 오베라는 남자는 그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소진하며 살았다. 결국, 아내가 죽은 후 아내 곁으로 가야겠다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자신이 지켜온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그의 자살을 막았다. 비로소 그는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의 이웃에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무엇이든지 고칠 줄 아는 아저씨로 알고, 그리고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좋은 이웃으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베라는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체득해갔다.

오베라라는 남자는 시간이 흘러 끝내 소냐의 곁으로 돌아간다. 그의 장례식은 그가 원했던 것처럼 조촐하게 끝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모여 그의 죽음을 추모했다. 그는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했지만, 그의 삶은 어쩌면 자신이 증오했던 사무적이고 권위적인 남자들처럼 편협한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결국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색깔을 얻었다. 그의 삶은 대부분 흑백이었을지 모르나 그의 죽음은 오색찬란했다.

성경의 복음서는 네 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님을 네 가지 색깔로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남다른 개성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친다. 그분은 마지막 자신의 시신조차 이웃에게 의탁하셨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이 결코 흑백의 삶이 아니었다고 가르친다. 그분 생전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 그분의 손길이 닿은 삶들, 그리고 그분이 내민 손으로 떡을 먹은 사람들이 많다. 그분은 제자들의 삶이 자신의 삶과 같기를 바라셨다. 예수님은 원칙과 교리에 갇힌 채 세상의 변화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에 냉담한 채 원칙과 교리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종교를 물려주시지 않으셨다. 기독교는 이웃에게 냉담한 흑백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종교다. 그리고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교회가 예수님의 다채로운(colorful) 삶의 발자취를 추억하는 이유다.

칼럼

눈치와 소신

김주원 목사
동산교회

카멜레온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숲속이나 나무 위에 서식하는 도마뱀류로 몸의 색을 바꾸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카멜레온의 변신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자기 변신을 잘한다. 생존과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철저히 변신하며 살아간다. 꼬리와 발의 힘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이동하며 철저히 나무와 잎사귀 주변에서 서식한다. 그들의 독특한 눈은 먹이와 포식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스캔할 수 있게 하면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곤충과 다른 작은 먹이를 잡기 위해 내 뿜을 수 있는 길고 끈적한 혀를 가지고 있다. 천적의 눈을 속이기 위해 본인의 색상을 순간적으로 변신해서 나무의 색으로 잎사귀의 색으로 주변 환경의 색상으로 변화하여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자연 속에서 생존하며 살아간다.

독 개구리는 처음부터 날 건들지 말라는 뜻으로 독이 있음을 화려한 색상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서 경고 하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존한다. 특히 황금 독 개구리는 사람들이 만지기만 해도 그 유해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시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독화살에 이 독을 묻혀 사냥할 정도로 그 치명률이 높다고 한다. 우리들의 모습은 현재의 신분과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변신하며 아니면 소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카멜레온처럼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변신하고 방어하며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 건들지마나 이런 사람이야 독 개구리의 색상을 가지고 남들에게 처음부터 소신 있게 자신을 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다.

요즘은 버팀목회를 해야 한다고들 한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이 무척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버텨 가라는 것으로 해석해 본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변신해서 버티어 가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묵직하게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살아가야되는 것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다.

이제 예성교단의 각 지방회에서 지방회를 이끌어가야 할 일꾼들을 선출했다. 특히 지방회장들은 지방회를 대표해서 실행위원의 신분과 자격으로 총회 실행위원회의에 참석해서 각종 총회와 산하기관의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보고 받고 회의 토의해서 인준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때 교단의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분명하다. 카멜레온처럼 이쪽저쪽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온갖 정치적 변신해서 교단의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한 회기를 마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난 이런 사람입니다." 소신껏 하나님 앞에서 실행위원회의와 각 지방회에서 당당하게 소신 발언하며 현장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정도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지방회장과 실행위원으로 한 회기를 마칠 것인가?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들에겐 소신을 갖고 현장의 법을 지켜가면서 교단의 일을 하는 그런 실행위원들이 필요하지 아니한가 싶다. 그래야 교단발전과 성장이 있고 성숙을 기대할 수가 있다. 한 회기의 지방회장으로 총회 실행위원으로 임기를 마치고 뒤돌아볼 때 지방회 목사님과 동료 후배목사님들에게 박수 받을 일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싶다. 그래야 임기를 마치고 나면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정 눈치를 보려면 예성 목회자답게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지방회와 교단의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면 될 것이다.

社說

시위, 투쟁이 답인가?

예수는 시위 투쟁가가 아니라 평화주의자였다. 나라를 전복하려 꾀하지도 않았고, 군중들을 향해 선동도 하지 않았다. 정치를 고민하며 시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고 하셨지 내가 맞았으니 대항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베드로가 흥분하여 칼을 꺼내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요 18:10) 예수는 베드로를 꾸짖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 26:52). 그리고는 "이것까지 참으라"(눅 22:51)고 가르쳤다. 예수께서 분노를 참지 않으신 부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 "화 있으라".....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가르쳤다. 예수의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대항하라, 시위하라, 피를 흘리며 싸우라'고 가르친 부분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에 달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 특히 교회가 대응하려고 하는 중요사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다. 이것은 확실히 나쁜 법안임에 틀림이 없다. 아름다운 성이 아닌 성적 타락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법안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억하라! 대로마의 기저에 깔린 성적 타락을 통한 멸망을 기억하라! 이것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은 법안이다. 기독교의 진리와 전혀 다른 곧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시대적 징조이다.

결국 이 법안은 교회를 한쪽 코너로 몰아세우고 바르게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다. 대중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평등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술수이다.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사단은 결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두지 않을 것이다.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바이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사단은 그가 만드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개나 돼지처럼 내 세상이니 너희는 주는 것 받아먹고 소리 낼 때 짖으면 된다. 반대의 소리가 나는 것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더욱 난동을 부릴 것이다.

교회가 사단의 세력을 향해 시위하고 투쟁한다고 해서 사단이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일까? 아무리 교회가 선제적 공격을 하고, 철저한 방어망을 구축한다고 한들 그들이 물러설까? 그들은 교회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은 한 가지 뿐이다. 시위보다는 투쟁보다는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길 수 있게 해 달라는 구함.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 고로 시위보다는 골방에서 더욱 기도하는 것만이 답일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결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20년 7월 20일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신현파 **사장** 강병익 **편집인** 이강춘 **인쇄인** 배성한
(주)성결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 1-29 총회회관)
대표전화 02-732-1288 / 070-7132-0091~5 **팩스** 02-732-1285 **홈페이지** www.sknews.org
광고 신청 안내 02-732-1286 / 070-7132-0091 **독자기고 · 제보** news@sknews.org/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000원 / 1년 40,000원
- **후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주식회사 성결신문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시흥지방회

회장 **홍영기** 목사
길벗교회

부회장 **이천의** 목사(이웃사랑교회)
서 기 **장선희** 목사(새빛교회)
부서기 **안성구** 목사(산돌교회)
회 계 **김요엘** 목사(사랑숲교회)

성결 캐릭터 공모전 안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지를 발간하는 『**성결사**』에서는 성결교회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캐릭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명 칭**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캐릭터 공모전
2. **공모전 자격** : 성결대학교 및 대학원생과 성결 교단의 모든 교인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팀 참가는 4인 이하)
3. **시 상**
   ○ 대 상 : 100만원(1팀)
   ○ 최우수상 : 70만원(1팀)
   ○ 우 수 상 : 50만원(2팀)
   ○ 장 려 상 : 20만원(3팀)
4. **공모작 제출방법**
   ○ 제출방법
   e-mail 접수(sungkyulsa@gmail.com)

※ 자세한 사항은 총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문 의 성결사 070-7132-0050, 010-7121-6016(장종용 목사)

초대합니다

서로가 마주보며 다져온 사랑을
이제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큰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사랑의 이름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식 장로 김혜경 권사 의 장남 성진
[최경행 이미경 의 장녀 슬해

| 일 시 | 2023년 4월 1일(토) 오후 3시
| 장 소 | 보타닉파크웨딩 오키드홀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60 ☎ 02-2662-8300)

• 신랑 측 입금계좌 : 신협 132-12-635-7 470 박정식
※ 이 광고로 청첩장을 대신합니다.